

『海外文學』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 효 중*

< 목 차 >

- I. 서론
- II. 창간 배경과 자료적 특성
- III. 수록 내용의 분석
 - 1. 필진경향
 - 1) 이하운
 - 2) 김진섭
 - 3) 정인섭
 - 2. 번역 소개된 작가 및 작품의 특징
 - 1) 창간호
 - 2) 2호
- IV. 결론

< 요 약 >

『海外文學』은 어떤 주의나 유파를 초월한 잡지로서 외국문학 전공자들에 의하여 외국문학을 감상하고 소개하기 위하여 직접 그들의 작품과 사조에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이유에서 창간된 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자율적인 태도를 가지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들의 간절한 의도가 드러난 것은 한글 사용에 관한 강한 주장을 통해서이다. 이들은 다양한 번역방법론을 제시하였고 번역의 개념 및 필요성, 번역의 문화적 역할, 번역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시비, 역어의 문제, 번역의 문체, 번역될 작가 및 작품 등 현대 번역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문학 번역이론사상 특기할 만한 성과를 보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여준 썸이다. 한국문학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70여년 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와 같은 잡지를 통하여 거론된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이 잡지에 소개된 작품이 주로 19세기 후반 이후의 구미문학에 국한되어 그 이전의 고전이나 일차 대전 이후의 세계문학은 제외되었다든가 도처에 誤謬와 誤字가 散見되는 점은 이 잡지의 한계이지만 편집진들의 진취적인 의도는 한국 번역문학의 개화라는 르네상스 현상을 도래하게 했을 것이 분명하고 올바른 번역문학사를 정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에 의하여 2호로서 중단되었음은 아쉬운 일이다.

<Abstract>

A Critical Survey of 『Hae-oi-mun-hak』

Kim, Hyo-joong

『Hae-oi-mun-hak』 is a periodical which was not subject to any ism or school. This journal was published by some of the scholars who studied foreign literature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literary works of foreign countries in a direct way.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is journal showed passionate tendence towards national self-respect. That can be perceived in the fact that it advocated the use of 'Han-gul' in an effort to boost our national pride.

Moreover the journal already was bringing about the various issues.

Those were discussion as to the definition of translation, its necessity, its role in the acculturation, the possibility of translation, stylistic problems, the selection of authors or literary works to be

translated, and so on. In fact, these issues are still under discussion in the current translation studies. It is just amazing that such matters, which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imes of globalisation like today, were already dealt with 70 years ago.

To name only a few defects, the journal introduced solely the literary works written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had many typos or errors resulting from lack of sophisticated capability of translating.

However the progressive intentions of editors and contributors of the journal, aimed obviously at the blooming of the Renaissance of Korean literature, can never be highly respected. To our disappointment did the journal cease to be published only after the appearance of the second issue.

I. 서론

우리 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자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이 분야에 관심이 깊은 학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회의가 자주 열렸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1996년 11월 7, 8일 대산문화재단과 연세대학교 번역문학연구소 공동주관의 <한국문학 국제 학술회의>, 1998년 12월 10일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주최로 서울대학교 호암관에서 열린 <21세기와 한국문학의 국제교류를 위한 방안>, 1999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최로 <번역과 문학>이라는 논제 아래 처음으로 열린 <번역학 심포지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96년은 국가적 차원의 이른바 <문학의 해>여서 문인들,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국위를 해외에 선양하고 우리가 유구한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정신문화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민족, 국가로서의

位相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국문학을 세계 속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문학자는 물론 외국문학자들이 공동작업을 통하여 한국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번역, 소개하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그 작업은 우리 문학의 전통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단계로 성숙하기 이전 단계까지 외국문학을 이입, 소개하여 우리 문학을 살찌워야 한다는 생각이 반세기 이상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의 근대시는 “그 시발의 동기부터가 서구의 충격에 상당 부분 힘입었고 그 이후에도 한국의 근대시는 중요한 고비에서 영·미·독·불·러시아 및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문학과 시의 의식과 기법, 형태, 양식을 참고해 왔다. 그리하여 어느 의미에서 한국 근대시의 전개과정은 이들 해외시의 수용과 반발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해도 무방하다”¹⁾는 언급은 크게 무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문학의 번역, 소개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잡지가 『海外文學』 이었고 당시 상황에서 이 잡지의 편집진들의 견해는 우리 문학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진보적이었으며²⁾ 그 성과도 또한 컸다. 이 잡지는 한국 비교문학의 초석이 되는 것이므로 전통의 바탕 위에 개혁이라는 엘리엇 T. S. Eliot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海外文學』은 반드시 면밀히 연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전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동일³⁾은 서양 문학이론의 수용이 많은 폐단을 빚어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그 수용이 일방적이기 때문이고 이런 태도로 인하여 서양의 이론은 더욱 빛나고 그것과 맞지 않은 한국의 사실은 못나 보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일방적 수용에서 벗어나

1)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p. 469.

2) 조동일은 해외문학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비평이 크게 활기를 띤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모색한 결과가 아닌 외래의 기준 처방에 의거한” 것이고 “서구문학을 소개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듯이 자부”하는 해외문학파가 전통에 입각하지 않은 비평의 허약성을 드러내었음을 지적하였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94, p. 247)

3)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p. 42.

서로 적용하는 방법을 택해 서양의 이론은 한국에, 한국의 이론은 서양에 적용하면서 그 결과를 견주어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이론을 비판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대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그 동안 축적된 학문적 성과에 의한 결과이다.

『海外文學』 창간호와 2호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일은 자료의 분석만으로도 양적으로 방대하므로 본고에서 우선 자료적 특성과 그 창간 배경을 구체적으로 해명한 다음 이 책의 수록 내용을 필진, 소개된 작가 및 작품, 문예사조, 장르 등의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 잡지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는 『海外文學』(경문사, 1927. 1. 및 1927. 7.)이고 원문의 내용은 현대 표준어문법에 맞추어 쓴다. 또한 연구방법으로 서지적 검토를 통한 실증적, 해석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기로 한다.

II. 창간 배경과 자료적 특성

『海外文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창간호(1927년 1월)가 발간되고 이어 2호(1927년 7월)를 마지막으로 폐간된 잡지로서 외국문학을 번역, 소개할 목적으로 외국문학연구회(세칭 해외문학파)⁴⁾가 간행한 것이다. 이 잡지는 본래 월간을 계획하였는데 재정난으로 인하여 비록 두 호로 終刊되

4) 세칭 해외문학파라고도 하는 외국문학연구회는 본인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19세기말의 데카단 이름과 같이 남이 지어준 이름으로 장차 문단상의 자리를 차지한 名號”(박용철, 「설문 문학유파의 개념」, <조선일보>, 1926. 1. 3) 혹은 “세칭 해외문학파라는 것도 카프측에서 부르기 시작한 명칭”(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68, p. 165)이다. 해외문학연구회 출범 시기는 『海外文學』의 「창간권두사」와 「編輯餘言」이 쓰여진 시기인 1926년 1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조동일은 “대학에서 서구문학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공부하고 그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밀천으로 삼아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외문학파라고 불려도 무방하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94, p. 247)고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서 보고 있다.

었으나 이 회원들은 외국문학의 이식과 평론,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의 창작을 통하여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당시 문단의 한 주류를 이루던 프로문학과는 다른 입장에서 우리 문단에 큰 영향 끼쳤다고 볼 수 있다.

『海外文學』이 발간 준비를 서두르던 1926년은 우리문학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문학사상이 발호하던 시기여서 1925년에 조직된 카프는 중요한 모멘트가 되었고 1926년에는 그 반대세력으로서의 민족주의적 부르조아 계급인 민족문화파와 더불어 문학적 旗幟를 달리하면서 대립과 항쟁을 왕성히 전개하던 때이다. 그런데 이 양자는 문학의 기본적 시야에 부족한 점이 많았으므로 그 보완책으로 외국문학의 한국적 소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이 시기에 무르녹아 있었다.

외국문학연구회는 김진섭, 손우성, 이선근, 김은, 정인섭, 이하운 등 동경유학생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나중에 이현구, 김광섭, 김기제 등이 참가하였다. 이 연구회가 조직된 주요목적은 외국문학의 번역, 소개, 연구 및 우리 문학의 건설과 세계문학의 상호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海外文學』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았다. 즉 1) 일본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말고 직접 구미문학을 접촉하자는 것 2) 외국문학 소개를 통하여 한국문학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 3) 외국문학 소개는 어느 유파에 한정하지 말고 광범위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海外文學』 창간호는 총 202쪽 분량으로 잡지의 발간을 축하하는 「글벗집」, 「朝鮮人技藝社」,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광고, 실업가,有志, 학교, 교사 등 개인별 잡지 발간 축하 광고를 추가하고 있다. 이로써 당시 이 잡지의 출간이 다양한 계층에 의해 대대적으로 환영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7년 7월에 창간된 2호는 총 68쪽에 달하는 내용과 책 출간을 축하하는 광고로 메워져 있다. 이 잡지는 정인섭의 발의에 따라 발간된 것이고 따라서 정인섭이 책 출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호는 잡지의 발행지가 東京⁵⁾인데 그것은 창간호에서 편집자와 발행인의 불일치에서 오

는 誤植과 誤字를 시정하기 위한 강구책의 결과이다. 이것은 2호의 편집 후기에서 분명히 파악된다.

편집부와 발행소, 인쇄소가 떨어져 있던 관계로 일어나는 모든 불편을 덜기 위하여 고난을 무릅쓰고 동경에서 편집 발행케 한 것이다. 前番號 독자께 誤植 등 不敏으로 불편을 많이 끼치게 된 것도 그러한 원인에서이다.

2호는 전체 분량이 창간호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빈약하고 축하 광고도 개벽사, 신소년사, 동광사 등으로부터의 광고에 불과할 뿐이다.

III. 수록 내용의 분석

1. 필진 경향

『海外文學』의 필진과 내용을 호별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창간호

평론

■ 김진섭 ……표현주의문학론

5) 『海外文學』 2호 말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昭和 2年(1927年) 7月2日 印刷 納本	
昭和 2年(1927年) 7月4日 發行	
編輯 兼 發行者 鄭寅燮	
	東京市外上戶塚伊勢原831番地大塚方
印刷所	同聲社 印刷所
發行所	外國文學硏究會
	東京市外上戶總伊勢原831番地
東京總販賣所	三省堂小賣部
京城總販賣部	朝鮮婦人技藝社

- 花藏山人……포오를 논하여 외국문학연구의 필요에 及하고
『해외문학』 창간호를 祝함
- 김석향……최근 英詩壇의 추세
- 이선근……露西亞文學의 창시자 푸쉬킨의 생애와 그의 예술

소 설

- 정인섭 역……赤死의 가면(美 : 포오)
- 노재환(본명 孫宇聲) 역……크랭크비이오(佛 : 아나톨프란스)
- 이하운 역……신부의 木犀草(佛 : 아나톨프란스)
- 이하운 역……제스타스(佛 : 아나톨프란스)
- 김진섭 역……門前의 一步(獨 : 하인릿히 · 만)
- 이은송 역……고귀의 설움(露 : 와시리 · 에르센코)
- 이하운 역……빌지니와 포울(佛 : 빌리에 · 드 · 릴라당)

시

- Raymond Bantook……영문 창작 산문시
- 이하운 역……가을노래(佛 : 베르레느) 외 4편
- 이선근 역……악마(露 : 푸쉬킨)
- 金石香(본명 金明燁) 역……나이팅게일(英 : 로버트 브리지스 외 2 시인) 외 2편
- 노재환 역……추억(佛 : 알프레 · 드 · 뫼세)
- 김진섭 역……모든 것은 유희였다(獨 : 케 · 에프 · 메이야 외 7 시인) 외 10편
- 이하운 역……노래 3곡(白 : 모리스 · 마텔링크)
- 노재환 역……애련가(佛 : 알베르 · 사맹 외 2 시인) 외 5편
- 胡適 作……11월24夜(支那 자유시)

회 곡

- 김은 역……求婚 회극 1막(露 : 안톤 체흠)
- 역자 미상……月光 미래파 종합극 1막(伊 : 마리네테)

기 타

- 편집자 作……포오 小傳
베르레느 小傳
편집餘言
- 蓮圃 作……文藝閑談
- 夜光 作……讀書餘錄
- 금강 作……翻譯고십

▶ 2호

평 론

- 이선근……黎明期 露西亞 文壇回顧
- 함일돈(함병업)……明治文學의 史的 考察
- 정인섭……쇼오劇의 작품과 사상
- 헨리 피포쓰……피란델로와 그의 독창성

소 설

- 노재환 역……알르의 여자(佛 : 알폰스 도레)

시

- 정규창 역……산문시(英 : 맥클리오드) 외 2편

- 이하운 역……愛誦(英佛美日) 9편
- 김한용 역……서풍에게 보내는 노래(英 : 셸리) 외 1편
- 이병호 역……二老兵士에게 寄하는 輓歌(美 : 휘트먼) 외 3편
- 胡適……四烈士塚上的沒字碑歌(중국자유시)

회 곡

- 김은 역……백조의 노래(露 : 안톤 체홉)
- 장기제 역……그가 그녀 남편 속인 이야기(英 : 버너드 · 쇼)

기 타

- 레이몬드 반톡……頭言
버너드 · 쇼오 인상기
- 편집자 作……좌담회(한글 사용에 대한 외국문학견지의 고찰)
執筆諸氏의 最近消息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필진의 성격을 규명해 보면 창간호의 경우 노재환(번역소설 1, 번역시 6, 합 7편), 이하운(번역소설 3, 번역시 2, 합 5편), 김진섭(평론 1, 번역소설 1, 번역시 1, 합 3편)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2호에서는 이하운(번역시 9편), 이병호(번역시 4편)가 거의 독보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각기 자기 전공영역에 따라 외국 작품을 번역, 소개하고 있다.

창간호에서는 佛, 獨詩의 번역소개가 強勢를 보이고 다음으로 러시아시, 영시의 順이다. 2호에 이르면 집중적으로 소개하던 독일시는 없어지고 일본시가 추가되며 영국시는 2배로 늘어난다.⁶⁾

6) 나라별로 작품소개 편수를 헤아려 보면 아래와 같다.

창간호: 佛 16편, 露 8편, 英 4편, 美 1편, 獨 12편
2호 : 佛 4편, 露 1편, 英 9편, 美 4편, 日 1편

그러면 필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진 가운데 창간호부터 가담했던 해외문학과 1진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정인섭, 김진섭, 이하운이고 이현구는 1927년 늦게 가담한 2진에 속한다. 이들은 뚜렷한 주관과 신념으로 「海外文學」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간 이론가들이다.⁷⁾

1) 이하운

이하운은 「우리는 왜 외국문학에 관심해야 하나」⁸⁾라는 글을 통해 외국문학의 연구와 감상은 우리 문학과 항상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번역은 명작이어야 하되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을 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전통의 바탕 위에서 외국문학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당연한 논리이다. 특히 그는 이 글에서 외국작품 연구 소개, 번역할 작품 선정에 지대한 관심을 두자는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현대 번역이론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世界文學과 조선의 번역운동」(<조선중앙일보>, 1933, 1.1)이라는 글에서는 과거의 번역이 무책임하게 사건 나열 위주의 동향 소개에 그쳐 참고문헌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고 보고 近年에 와서 “시, 소설, 희곡 등의 번역이 진지한 태도에서 발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것에 대한 탐구열과 함께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은 현대 세계인으로서 세계문학적 견지에서 가장 慶賀할 한 가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번역은 “정확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조나 유파나 작품을 검토

7) 해외문학과가 쓴 글의 제목만 보더라도 그들의 관점을 알 수 있다.

① 정인섭 : 「가가날과 외국문학연구」(1927). 「조선현문단에 호소함」(1931). 「1932년의 문단전망」(1932). 「조선문단의 현재급과 수준」(1934). 「1935년의 문단론」(1935). 「조선문학 주류문제」(1935). 「당래할 조선문학을 위한 신계창」(1936). 「세계문학과 조선문학」(1940).

② 이현구 : 「조선에 있어서의 해외문학가의 임무」(1932). 「해외문학창간전후」(1933). 「문학은 포기될 것인가」(1936). 「나의 논쟁시대——김철우 의 저돌적 맹격을 받던 기억」(1938).

8) 이하운의 「外國文學研究序論」(五)라는 글의 부제로서 <조선일보>(1934. 8. 18일자)의 내용이다.

하며 논의하며 초월해” 보겠다는 立志를 가지고 “외국문학연구 등에 관한 일반적 해석과 번역으로 가장 많이 상호연결을 하게 되는 세계문학과 조선문학의 관계 등에 미쳐서 얼마간 논지 전개의 嚆矢를 삼아” 볼 의도를 밝혔다.

이어서 해외문학과와의 존재 의의를 ‘조선의 한 기이한 구별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이 일으킨 번역운동은 확실히 이 무렵 문예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2) 김진섭

김진섭의 번역을 통한 해외문화의 수용에 대한 주장은 「翻譯과 文化」⁹⁾에서 잘 드러난 바 내용의 요점만 추리면 아래와 같다.

- ① 이 지상의 모든 국민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상호 기여하고 있고 생활은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 ② 현재의 예술과 문학은 세계 인류를 의식하고 외국인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감흥을 일게 하는 바 무엇을 가진 것이라야 진정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 ③ 문화의 국제적인 교환은 인류의 세계심이라는 감정 아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 ④ 번역의 역할은 지리적 교통과 문화의 교환이 시작된 날부터 인류의 내적 요구에서 연출되었으니 그 중대한 의미는 그것이 각 민족의 차이라는 대난국을 완전히 배제해 주는 데 있는 것이다.
- ⑤ 문화의 국제적 교류는 사람이 하기보다 번역서가 그 대부분을 분담한다.
- ⑥ 오늘의 문화는 항상 세계를 일관하여 강한 영향 아래 발전한다.
- ⑦ 번역은 세계문화의 일대집성을 용이하게 한다.
- ⑧ 번역 특히 문학번역은 한계가 있어 원작과 거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9) <조선중앙일보>(1935. 4. 17 - 1935. 5. 1)

중요한 것은 얼마나 원문을 잘 이해했느냐 이다.

결국 김진섭이 밝힌 내용 속에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개념, 번역과 문화, 번역의 가능성 시비, 번역에서 역어의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들의 견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양주동과의 논쟁에서이다. 논쟁의 첫 계기는 양주동이 『海外文學』 창간호에 대한 공격을 가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김진섭과 이하윤의 반박내용¹⁰⁾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즉 그 요지는 번역의 태도, 직역, 의역의 문제, 경문이나 연문이나 하는 문체의 문제, 역어에 관한 문제, 역어의 한계성 등이다.

이하윤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역을 허용하자는 견해인데¹¹⁾ 이것은 현대 번역이론에서도 원문에 충실하되 원문의 분위기나 의미상 불가피한 경우 의역을 허용하는 경향임을 감안한다면 그는 이미 번역에 관한 자기 나름의 이론적 무장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론의 당위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김진섭의 경우는 직역, 의역에 구애치 말고 번역자의 기호에 따르는 것으로 여겨¹²⁾ 극단론을 펼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산문번역에 치중했으므로 시번역에서 문제되는 형식, 정서, 분위기 등의 표현보다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즉 시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의미와 발음의 정확성의 전달에 더 비중을 두어 그런 대로 성공적인 면이 없지 않다.¹³⁾

직역, 의역에 관한 문제는 동·서양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아직까지 정설이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의 흐름은 번역

10) 『신민』 26호, 1927. 6. p. 94.

11) <동아일보>(1927. 3. 20일자) 참고.

12) <동아일보>(1927. 3. 22일자) 참고.

13) 홍승우 외, 「서구문학의 번역 및 수용연구」, 『비교문학』 13집, 한국비교문학회, 1989. pp. 145-146.

독자와 번역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비교적 설득력이 있게 수용되고 있는 견해는 귀팅어의 이론인데¹⁴⁾ 즉 ① 의역/직역, ② 원문의 체험 소개/원문의 지시내용 소개, ③ 독자를 자극하기 위한 의역/이와 무관한 의역, ④ 원문이 쓰인 시대의 언어로 번역/번역자가 處한 시대의 언어로 번역, ⑤ 원문으로 취급되게 번역/번역문의 느낌이 들도록 번역하느냐의 문제이다.

문체면을 보면 이하운은 軟文體를 주장하는 양주동의 주장에 반박하여 硬文體를 주장하였는데¹⁵⁾ 번역으로 인하여 日語가 발달했음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정당한 번역 앞에 그까짓 現文壇 軟文體 云云하여 우리를 그에 適合시켜 보려는 것은 또 무슨 어리석은 말인가”라고 비판하였다. 김진섭 역시 양주동이 주장하는 문체론을 진부한 국수적 상식론 이하로 간주하고 硬文體를 주장하였다.¹⁶⁾

김진섭의 역어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깊은 단계에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작품을 번역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형태를 바꾸지 않고 외래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방법, 둘째, 외국어를 축어적으로 직역하는 방법, 셋째, 자국에 예로부터 있는 말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번역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결국 이 세 사람의 주장을 요약하면 김진섭과 이하운은 원작의 맛을 잃지 않도록 원작의 문체에 따르자는 것이고 양주동은 시대의 문체를 고려하여 번역하자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체 역시 그렇게 쉽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어서 각기 장·단점이 있다. 만약 어떤 작품을 번역자가 살고 있는 당대에 맞추면 당대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지만 원작가의 고유의 특성이 삭감될 위험이 있고 원

14) F. Güttinger, *Zielsprache*, Zürich, 1963, p. 39.

15) 이것은 양주동의 軟文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논문에는 硬文體를 사용하여 한자와 우리말을 혼용하되 소설이나 희곡 등의 글에는 軟文體를 써서 될수록 難澁한 한자나 漢語의 慣用古事句를 쓰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譯詩는 원작의 기분과 杼擘을 최대한 譯出하기 위해서는 직역하되 融通성이 있어야 함을 시사했다. (『新民』 26호, 1927.6. p. 96)

16) 김진섭, 「기괴한 비평현상, 양주동 씨에게」(二), <동아일보>(1927. 3. 23).

작의 행위, 태도, 사고, 말씨, 구두점 등이 번역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문체의 문제도 논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김진섭은 아울러 우리 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문학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개인적 문체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언어표현, 문체 등을 서구의 훌륭한 작가들로부터 배워 우리 자신을 풍부히 해야 한다고 했으며 번역될 작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좋은 번역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니체가 말한 바 사람은 보는 것, 생각 하는 것, 쓰는 것을 배워 교양을 쌓자는 것을 배우고 칸트의 인식론, 피테의 파우스트, 빌헬름 마이스터 등을 음미하고 문체론이라는 표현의 생산성을 考究해야 함을 주장했다.¹⁷⁾

이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3) 정인섭

다음의 글은 『海外文學』의 창간 권두사인데 정인섭의 해외문학 연구에 대한 견해가 확연히 드러난 글이다.

『海外文學』은 결코 단순한 코스모폴리탄이 아니요 또는 피상적인 서양숭배자가 아니며 우리의 정신을 천대하는 그런천박한 자아몰상식의 환자도 아니다. 모든 것이 미약했던 구주각국도 먼저 선진문화인 희랍 羅甸文學을 가장 경건한 태도로 감상 연구하여 혹은 형식의 모방, 혹은 내용의 모작, 그래서 각각 자유로운 예술혼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 문학을 건설할 수 있게 농후한 색채와 풍부한 재료를 함축시키고 그와 병행 진행되어야 할 민족고유정신의 특수 예술본능과 혼합시켜서 금일의 위대한 문학 및 그에 부속하여 발달된 모든 문화부분의 盛旺을 봄과 같이 우리도 금일의 우리 사회에서는 될 수 있는 데까지의 충실한 태도로서 해외문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정인섭은 해외문학 연구와 수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

17) 김진섭, 「기괴한 비평현상, 양주동 씨에게」(四), <동아일보>(1927, 3. 25).

으며 「번역예술의 유기적 기능」(1927)이라는 논문에서 “新語創造는 외부에 대한 탈출”이며 “만일 어떠한 신어로써 그의 진의를 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신어가 재래의 우리말에 없더라도 그 신어를 사용함에 무슨 문제가 있으랴”고 하면서 신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글에서는 해외문학 수용의 논리적 근거가 자아의 고립 상태를 막고 개성의 부분적 편재를 방지하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자아확립의 방법과 문학활동의 실제에서 배려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번역 소개된 작가 및 작품의 특징

『海外文學』에 소개된 작가 및 작품은 다양한데 외국작품의 번역, 소개에서 필수적이어야 할 원전 소개가 생략되어 있어 번역 원문과의 비교 분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일이 각 장르별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그 전 단계 작업으로서 수록작품의 경향과 편집인들의 작품 선택의 태도 혹은 기준을 살핌으로써 당대 독자들의 취향과 시대적 성격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1) 창간호

창간호에서는 시, 소설, 평론, 희곡 등 네 장르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포우와 베를렌즈의 생애를 다룬 후 「文藝閑談」, 「讀書餘祿」, 「翻譯고심」, 「編輯餘言」 등을 실고 있다. 먼저 시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

국적	작가	작품	번역자
프랑스	베르레느	가을노래	이하운
		내가슴 속에는 눈물이 퍼붓네	
		가이없는 검은 잠은	
		흰달	
		안개 어리운 냇가에 나무그림자는	
프랑스	알프레드 드 뤼세	추억	노재환
	알베르 사멩	애련가	
	폴 제랄디	疑念	
		掛念	
		冥想	
노아이오 남작노인	사랑의 시		
러시아	푸쉬킨	악마	이선근
		毒나무	
		구름장	
		아침해	
		폭풍	
		배	
영국	로버트 부릿지스	나이팅게일	김명엽
	존 메이스필드	진리	
	윌터 드라메어	대답없는 사람들	
독일	케 에프 메이어	모든 것은 유희였다	
	피테	머니용	
	코펏슈	不知火	
	후-고 폰 호푸만 슈탈	외적 생활의 쓸라메	
	하인리히 로이틀드	어린 젊은 벗에게	
		廢園	

독일	아다 크리스텐	孤獨	김진섭
		忍苦	
		池邊	
	푸리드리히 니체	짜라투스트라의 노래	
	야콥 유리우스 데 이벳	길에서	
벨기에	도리스 마텔 링크	노래 三曲	이하운

위의 표에서 보듯이 번역되고 있는 나라별로 열거하면 프랑스 시 11편, 독일 시 11편, 러시아 6편, 영국 3편, 벨기에 1편 등 총 32편이다. 특기할 것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인 베를렌느의 시와 러시아의 푸쉬킨의 시가 집중적으로 번역된 것이다.

우선 베를렌느의 경우를 보면 시대적 조류와 무관하지 않다. 1920년대 「폐허」, 「금성」, 「창조」, 「서울」, 「개벽」, 誌 등을 통해 譯刊된 프랑스 시 가운데 베를렌느가 22편으로 압도적이며 보들레르 시가 16편으로 나타나 상징파 시인들로 일관되어 있는데¹⁸⁾ 이는 서구문학의 수입, 소개를 염두에 두고 발간된 「泰西文藝新報」를 통해 개척된 프랑스 상징파 시인들의 시가 20년대에 환영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이것은 또한 일본에서의 상징파 시의 성행을 그대로 반영한 현상으로 보인다.¹⁹⁾

러시아의 경우 「백조」, 「청년」, <동아일보>를 통해 투르게네프가 압도적으로 譯刊되었고 푸쉬킨은 「개명」 誌에 단 한 편인 「집시」만 번역된 것²⁰⁾에 비하면 매우 異例의이다. 이것은 역자의자의 취향이 반영된 것

18) 김억은 자신의 문학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면서(「要求와 悔恨」, 「學之光」, 10, 1916. 9, p. 44) 베르레느와 보들레르의 작품세계를 예찬하고 그 구체적인 작품의 예로서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베르레느의 「슬기」, 「말없는 로맨스」를 들었다. 이 글은 최초로 어느 한 유파, 경향에 속하는 시인을 취급한 것인 동시에 김억의 상징파 시에 대한 즐기찬 관심을 보여주는 최초의 글이기도 하다.

19)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pp. 438-439 참조.

20) 김병철, 앞의 책, p. 448.

으로 판단된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는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고루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하게 번역, 소개하고자 하는 해외문학파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다음 소설과 희곡의 번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소설

국적	작가	작품	번역자
미국	에드가 알렌 포우	赤死의 假面	정인섭
프랑스	아나톨 프랑스	크랭크비이오	노재환
		신부의 木犀草	이하윤
	제스타스		
	벨리에 드 릴라당	빨지니와 포울	
독일	하인리히 만	문전의 일보	김진섭
러시아	아시리 에르센코	고기의 설움	이은송

▶ 희곡

국적	작가	작품	번역자
러시아	체홉	구혼	김은
이탈리아	에뤼 더 마리네 티	월광	역자 미상

미국의 작가는 주로 포우가 소개되었는데 그의 소설을 우리 나라에 처음 소개한 것은 김명순으로서 그녀는 『개벽』 제 29호(1922. 11. 1)에 『相逢』을 번역 소개하였다. 1920년대 미국 소설을 번역, 소개한 경향을

일별할 때 특징적인 것은 주로 대가들의 작품을 선택하여 번역,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이 시기에 번역, 소개된 소설은 포우 2편, 런던 2편, 오 헨리 4편, 헨리 벤다이크 2편, 마아크 트웨인이 1편 등이다.²¹⁾ 이들 작가 가운데 특히 마아크 트웨인, 런던, 오 헨리 등은 비록 당시의 현존 작가는 아니지만 1910년대에 작고한 미국의 인기작가들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프랑스문학의 경우 아나톨 프랑스의 소설이 3편이나 번역, 소개된 것은 그가 1921년에 노벨상 수상자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까닭으로 『海外文學』에 소개되기 이전에 이미 그의 작품 가운데 「혁명의 제2년」(步月生 역, 『개벽』 11호 1921. 5. 1)과 「마리아의 재주꾼」(琴童 역, 『靈台』 제5호, 1925. 1. 1)이 번역, 소개되었다. 그리고 프랑스문학의 소개는 영미문학과는 달리 당시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어학실력이如意치 않아 대부분이 일역의 중역이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1920년대의 서구문학 중 독일문학은 다른 나라 문학에 비해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된 것이 질양면에서 아주 빈약한 편이고 피테나 하이네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토마스 만의 형인 하인리히 만은 해외문학에 처음 소개된 작가에 속한다. 그의 작품에는 초기의 걸작인 「소도시」와 제1차대전 후의 젊은 세대를 열광시킨 「신하」 등이 있는데 이처럼 그가 열광적인 인기작가라는 점이 번역 소개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곡분야에서는 채흠의 작품이 번역, 소개된 바 1920년대 번역, 소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작가가 채흠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 채흠의 「곰」은 역자 미상으로 <시대일보>(1925. 12. 7)에, 「와-나이저시」는 토월회 제1회 공연을 통해, 「개」는 素靑에 의하여 『靑年』지에 각각 번역 소개될 정도로 채흠 작품의 번역, 소개는 20년대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이 『海外文學』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탈리아 문학이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된 시기는 1910년대로서 1920년대에 이르러 그 폭이 커졌다. 번역 선정 작가의 경우도 다른 나라 문학

21) 김병철, 앞의 책, p. 429 참조.

의 경우처럼 大家들로서 필란테로와 타난치오 등인데 이들은 당시 세계적 명성을 누리고 있던 작가들이다. 마리네티의 경우 “『미래파 문학 기술 선언』(1910)을 통해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가”²²⁾라는 사실이 번역 소개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평론 부분에서는 이리-야 에렌부르크의 표현주의 문학론을 번역,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현주의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문예사조로서 이것이 처음 소개되기는 3·1운동 직후인데 1910년대 일본에 건너가 연극이나 문학을 공부한 현철, 김우진, 김진섭, 서항석 등 독문학, 영문학 전공의 외국문학도들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이들 가운데 현철이 일본 신극의 선구자 시마무라호오게쓰(島村抱月)의 문하생으로서 1921년 「독일의 예술운동과 표현주의」²³⁾라는 글을 통하여 처음으로 표현주의를 소개한 것을 필두로 하여 김진섭, 서항석 외에는 대부분이 독일 혹은 일본인들이 소개한 글들을 축약하거나 번안하여 소개한 정도에 그쳤다. 사실 표현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수용한 것은 되지 못하지만 이론 정립을 위한 것이 이들의 목표였으므로 그 개념과 본질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철에 이어 임장화, 박영희, 석연생, 최학송, 조희순 등 문인들이 단편적인 소개글을 썼는데 유민영이 지적인 것처럼²⁴⁾ 김진섭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전신자적 입장에서 표현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김진섭은 일본 법정대학 독문과 출신으로 표현주의 발생배경으로부터 발전, 본질, 이념 및 주요 작가들을 소개할 정도로 20년대 표현주의를 가장 깊이 연구 소개한 문예이론가였다. 『海外文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의 글의 내용은 “새 예술은 벌써 예술됨을 그치니라”라는 에렌부르크의 말을 부제로 달고 시작하고 있는 바, 글 속에서 표현주의 발생배경을 헤르만 바르Hermann Bahr의

22) 『文藝大辭典』, 학원사, 1962, p. 284.

23) 이 글은 일본의 문학이론가인 梅澤이 쓴 「표현주의의 유래」를 현철이 요약해서 「개벽」(1921)에 발표한 글이다. 이 무렵 많은 문학이론이 전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현철이 유독 표현주의 사조만을 소개한 것을 보면 일본에서 그가 가장 강렬하게 자극받은 사조는 표현주의임이 자명하다.

24) 유민영, 「표현주의 문예사조의 이입양상」, 『문예사조사』(이선영 편), 민음사, 1991, p. 400.

『표현주의Expressionismus』(1916), 만푸렛트 슈나이에테르Manfred Schnieter의 「희곡의 표현주의Der Expressionismus in Drama」에서 찾았고, 표현주의의 이념과 본질은 에드 슈미트K. Edschmid의 「시작상의 표현주의론Über den dichterischen Expressionismus」, 베른하르트 디블트의 「희곡의 무정부Anarchie im Drama」에서 밝혀냈다. 그는 표현주의의 예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은 독일의 저서들을 섭렵함으로써 이론의 핵심적 부분을 상당부분 그대로 소개하고 표현주의를 철저히 탐구하여 이를 20세기 문학방법으로 인식하고 옹호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김진섭이 『海外文學』 창간호에서 하인리히 만의 「門前의 일보」를 번역 소개한 것이다.²⁵⁾

평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포우와 푸쉬킨의 생애와 예술을 소개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역사비평에서 중시하는 문학 외적 요인으로서의 작가 전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 많은 서양 작가 중에 특히 포우와 푸쉬킨에 관심을 쏟은 이유를 살펴보면, 앞에서 소설 작품의 번역 소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가들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당대의 세계적인 문단의 흐름에도 유의한 것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은 김석향의 「영시단의 추세」를 소개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 2호

먼저 시를 보면 英, 佛, 美, 日 詩가 번역 소개되고 있는데 이병호가 휘트먼 시를 3편이나 번역, 소개하고 중국과 일본 시를 각각 1편씩 번역,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휘트먼의 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데는 당시 일본에서 휘트먼 시 번역, 소개가 붐을 이룬 것과 무관하지 않다.²⁶⁾ 휘트먼 시

25) 이 글에 대하여 양주동은 번역이 難澁하다 하여 是非를 걸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김진섭은 「표현주의문학과 그 언어표현의 苦澁에 대하여」(〈조선일보〉 1927. 5. 23 - 5. 31)에서 10회에 걸쳐 표현주의 언어의 난해성을 독일어 발달사를 축약, 설명하면서 자기 변명 겸 설명을 하였다.

26) 김병철의 조사에 의하면,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사이에 일본에서는 휘트먼의 시가

는 맨 처음 에덴이 『서울』 9호에 「풀이란 무엇?」의 2편(1920)을 번역, 소개한 이래, 김석송이 개벽 25호에 「선구자여 오 선구자여」의 5편(1921)을, 劉無涯가 『青年』 2호(1922)에 「펜을 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주요한은 『東光』 2호에 「사공이여 우리 사공이여」를 번역한 것을 보면 1920년대 휘트먼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시를 번역한 것은 창간호에서 지나치게 歐美 시에 치중하였으므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소설은 알폰스 도데의 작품 단 한 편만 번역함으로써 창간호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년대 프랑스 소설 번역은 10년대처럼 모파상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大家이고 단편을 많이 창작했으며 작품이 흥미를 유발한다는 데도 원인이 있었다. 여기에서 20년대 번역된 소설 42편중 12편이 모파상의 작품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2호에 이르러 모파상 대신 도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데의 「마지막 수업」은 최남선이 『동명』 2호(1923)에 「마지막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피천득이 <<동아일보>>(1926. 8. 19-27)에 「마지막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번역, 소개하였다. 번역자들이 이 작품을 선정한 것은 이 작품이 호소하는 민족주의적 香臭 때문일 것이다. 이병호가 『海外文學』에 도데의 작품을 소개한 것은 세 번째인 셈이며 성격이 다소 다른 『알르의 여인』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 장이 사랑하여 결혼까지 계획했던 알르의 여인이 과거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자 자살하고마는 불행한 결말의 작품이다. 2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문학의 교훈적, 이념적인 주제 위주의 사고를 탈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희곡작품은 안톤 체홉과 버나드 쇼의 작품 2편이다. 우선 체홉의 경우를 살펴보면 20년대 들어와 러시아 소설의 번역, 소개가 현저히 많아진

붐을 이루었다. 번역서도 여러 권이 있으며 휘트먼 기념호로 시잡지 『現代詩歌』(1919)가 나오고 휘트먼의 傳記가 든 『민주주의의 선구』(1919), 휘트먼의 평전이 든 『十日月の夜』(1921) 등이 나왔다.(김병철, 같은 책, p. 431)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에 체홉의 소설만 11편, 톨스토이 10편, 고리키가 8편, 투르게네프가 5편, 치리코프, 바야세프가 각기 4편, 도스도예프스키, 솔로굽이 각기 2편²⁷⁾인 점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미 『체홉 단편집』(권보상 역, 조선도서주식회사, 1924)이 나와 있던 상태였고 평론 부문에서 「黎明期 러시아문단 회고」라는 題目 아래 러시아 문학이 소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호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글 사용에 대한 외국문학 견지의 고찰」이라는 題下의 좌담회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참석자는 김은, 김한용, 이병호, 이선근, 이하윤, 장기려, 정인섭 등이고 날짜는 6월 9일, 장소는 忍涉亭(일본 소재)으로 되어 있다.

내용의 골자는 제2기 르네상스로 들어간 우리 사회가 직접 세계문화를 흡수하는 타율적 면과 향토적 자율성을 밝히는 운동의 일부 즉 한글이란 자율적 표기의 양면에 그 목표가 있음을 천명하고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한 발은 외국에, 한 발은 內地에 있는 사람들로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한글 학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국수주의적 편견을 버릴 것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IV. 결 론

『海外文學』은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각기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 영국, 미국, 독일, 불란서, 러시아 등 다양한 외국문학을 번역, 소개한 첫 번째 잡지이다. 이 잡지 이전에 이미 외국문학의 번역, 소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중역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역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전통의 바탕 위에 외국문화를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이중역을 지양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작품을 번역할 때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번역의 개념 및 필요성, 번역의 문화적 역할, 번

27) 김병철, 같은 책, p. 443.

역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시비, 역어의 문제, 번역의 문제, 번역될 작가 및 작품 등 현대 번역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문학 번역이론사상 특기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셈이다.

한국문학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잡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70여 년 전 이에 대한 논의가 무의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각이 앞서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이 잡지는 어떤 주의나 유포를 초월한 잡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시 상황은 어느 문학의 유포 혹은 주의에 예속될 가능성이 많았고 그 아류에 섞일 위험성이 많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영합하지 않고 그들의 신념을 관철시켰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海外文學』誌는 이헌구가 「海外文學 創刊 前後」에서 밝혔듯이 외국문학을 감상하고 소개하기 위하여 외국어의 힘을 빌어 직접 그들의 작품과 사조에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이유에서 창간된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결코 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자율적인 태도를 가지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간절한 의도가 드러난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글 사용에 관한 강한 주장을 통해서이다.

다만 해외문학지에 실린 서구의 작품은 주로 19세기 후반 이후의 구미 문학에 국한되어 있어 그 이전의 고전이나 일차 대전 이후의 세계문학은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잡지의 도처에 誤謬와 誤字가 散見되는 점도 지적된다. 그것은 편집지와 발행지가 동경과 서울로 되어 있어 그야말로 “원고만 우송하고 안배와 교정을 소홀히 하였”²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늘날의 형편도 그리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번역가의 위상이 부차적일 뿐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당시의 풍토와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해외문학파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의도와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28) 이하윤, 『해외문학시대의 문인들』, 『이헌구선생송수기념논총』, 1970, p. 498.

못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의 의지와 전문별 능력은 한국에 번역문학의 개화라는 르네상스 현상을 도래하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그들이 번역가를 天職으로 여기고 오직 그 일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전통은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직업인으로서의 번역가의 수가 매우 적게 된 원인이 되었다.

참 고 문 헌

- 국어국문학회(1989), 『국어국문학과 구미이론』, 지식산업사.
- 김종길 외(1977),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민음사.
- 김병철(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 _____ (1980), 『한국근대서양이입사연구』, 을유문화사.
- 김용직(1983),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 김효중(1998), 『번역학』, 민음사.
- 유민영(1991), 『표현주의 문예사조의 이입양상』, 『문예사조사』, 민음사.
- 외국문학연구회(1927), 『해외문학』, 경문사.
- 이하윤(1970), 『해외문학사대의 문인들』, 『이헌구송수기념논문』, 동
기념논문간행위원회.
- 조동일(1991),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 _____ (1994),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 홍승오 외(1989), 『서구문학의 번역 및 수용연구』, 『비교문학』 13집,
한국비교문학회.
- F. Güttinger(1963), *Zielsprache*, Manese Verlag, Zürich.
- Genzler, E.(1993),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Hermans, T.(ed.)(1985),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Croom Helm, London.

- Kloepfer, R.(1967), *Die Theorie der Literarischen Übersetzung*, Wilhelm Fink, München-Allach.
- Levý, J.(1969),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 Athenäum, Frankfurt,
- Schleiermacher, F.(1838), "Ü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 in: *Friedrich Schleiermacher's sämtliche Werke. Dritte Abteilung. Zur Philosophie*, Zweiter Band, Berlin.
- Stolze, R.(1994.), *Übersetzungstheorien*,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Störig, H.(1969), *Das Probleme des Übersetzens*,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